

이지연

이번 평화드림5만리를 통해 좋은 경험들을 하고 배움과 사람, 사랑을 얻을 수 있어 너무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평화드림5만리 여정에 아직 대학생도 아닌 내가 예비신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 나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평화드림5만리의 여정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평화드림5만리에 참여하기 전에는 평화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다. 하지만 13일의 여정동안 평화에 대해 계속 들으며 평화지지서명도 받고 퍼포먼스도 하니 나의 마음에도 평화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다. 하나님이 나를 평화드림5만리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텐데 나중에 나의 길과 꿈에 이번 여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된다. 이번 여정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먼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준열사에 대한 탐방이었다. 학교에서 이준열사에 대해 배웠을 때는 큰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준열사에 대해 깊이 배우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셨던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이준열사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는 폴란드 오시비엥침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기억에 남는다. 유대인 학살에 대해 듣기만 하던 내용을 실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본다고 하니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길은 다른 때와 다르게 마음이 무거웠다. 수용소에 도착하여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며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신발, 머리카락, 안경, 가방 등을 보니 수용소로 향할 때 무거웠던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특히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가스실과 화장터에서는 눈앞에 그때의 상황이 떠올려져 끔찍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세 번째로는 춤을 춘 것이다. 평소 교회 워십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데 평화드림5만리 여정 중 퍼포먼스도 있다고 해서 유럽에서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랬었다. 하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 춤은 추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이번 여정 중 춤을 출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춤을 추게 되었다. 처음 춤을 출 때는 떨렸었는데 계속 추니 재밌었다. 유럽에서 춤을 추는 일은 살면서 또 언제 겪을지 모르는 귀한 경험인데 이번 여정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값진 경험이 하나 생겨 기쁘다.

마지막으로 평화 지지서명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서명을 받는 것이 조금은 낯설었는데 계속하다 보니 재밌었고 유경동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필요한 몇 가지 영어문장을 외우니 서명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서명을 받은 끝에 1000명을 돌파했다. 처음에는 서명받은 사람이 적어 걱정이 되었는데 1000명을 돌파했다니 뿌듯했다. 서명이 UN으로 제출되었는데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가 평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여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큰 탈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다음 평화드림행사에도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평화드림5만리와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